

# 제3회 지리산 원추리 꽃잔치

## —지리산 노고단서—

우 중 수  
(지리산악회장)

지리산악회에서는 창립 21주년 기념으로 한국 국립공원 협회의 후원을 얻어 피서지로 이름 높은 노고단에서 지난 7月31日~8月1日 양일간에 걸쳐 제3회 지리산 원추리 꽃잔치를 실시하였다. 중전에는 “산나리잔치”로



<원추리꽃잔치 武場光景>

불러오던 것을 이번 제3회부터는 이 꽃의 원 이름을 따라서 “원추리 꽃잔치”로 이름을 바꾸어 부르게 되었다. 원추리는 원래 근심과 걱정을 잊는 꽃이라하여 망우초(忘憂草)의 별명을 갖는 가장 한국적인 정서를 풍기는 순박하고 아름다운 꽃이며, 하절이면 우리나라 어느 산에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꽃이지만, 지리산 원추리가 가장 유명하며, 더욱 노고단 넓은 고원에는 원추리꽃이 집단적으로 크게 군락을 이루고 해마다 7月 말부터 8月 하순에 걸쳐 약 한달동안 주황색으로 만발하여 장관을 이룬다. 이 아름다운 꽃밭을 전국 산악인에게 널리 소개하기 위하여 지난 74년부터 지리산악회에서 한국국립공원협회의 후원으로 꽃잔치를 마련하여온 것이다. 이번에 실시한 제3회 지리산 원추리 꽃잔치에는 대한산악연맹 김영도 의원님을 비롯하여 한국산악회의 조두현이사님 등 전국 각지에서 약 500명의 남녀 산악인들이 참가하였으며, 때마침 전남도산악연맹 주관으로 지리산 피아골에서 개교중인 제16기 하계산학교 남녀학생 150명도 김장호교수님과 박향식 이사님의 인솔로 꽃잔치에 참가하여 더욱 성황을 이루었다.

여름밤인데도 별빛이 유난히 반짝이는 고산지

대 밤공기가 차갑도록 시원하여 삼복더위도 아랑곳없는 노고단광장에서 벌어진 7월 31일밤의 모닥불놀이로 시작된 꽃잔치 전야제에서는 각 단체에서 출연한 흥겨운 특기 자랑에 이어 막간 찬조 출연한 원로회원 합태

주님의 30년동안 닦아온 클라의 구성진 가락과 아울러 구태군 번영회장 김무규선생님의 한평생 닦아온 빼어난 단소의 솜씨로 밤하늘에 울려나간 청성곡의 청아한 메로디는 청중을 매료시켜 더욱 꽃잔치의 흥을 돋구었다. 그리고 8月 1日 오전 9시부터 실시된 기념식에서는 대한산악연맹 김영도의원님의 경려사가 감명깊었으며, 남녀 6명에 대한 특기상 시상식에 이어 지리산국립공원 가꾸기와 노고산장 유지관리에 공로가 많은 한국국립공원협회 안원태실장님과 서울산악회 이정훈님 그리고 광주 AV센타의 박종갑님에 대한 지리산악회장의 감사패 증정이 있었으며 곧 이어 원추리꽃밭, 순례를 크라이막스로 성황리에 꽃잔치의 막을 내렸다.

또 꽃잔치와 아울러 현재 구례중학교 교사토 재직중인 신예작가인 송수원 시인의 산상시화전이 지리산악회 주관으로 노고산장에 전시되어 이채를 띠웠으며, 노산 이은상선생을 비롯하여 박목일시인 허연시인 등 기성시인의 찬조출품을 합하여 32점의 다채로운 시화전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산상시화전은 이번이 처음이었다.